

임실N치즈축제 '흥행 신화'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성료

대회·전시·컨퍼런스·드론공연·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

남원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6일 막을 내렸다.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6일 막을 내렸다.

'드론 레저스포츠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드론·로봇 레저 스포츠 대회와 드론·로봇 전시·컨퍼런스·드론공연·체험 페스티벌, 글로벌푸드 페스티벌 총 네가지의 테마로 드론을 총망라하고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을 더한 행사로 꾸러졌다.

행사 기간 펼쳐진 FAI 드론레이싱 마스터즈, 드론 실종도시 남원형 드론 레이싱 경기, 드론 메이커스(코딩) 대회, 일반인참여 드론 농구대회 FIRA 아시아컵, 국토부장관기 초·중·고 전국 드론축구대회, 제2회 남원시장배 드론축구대회, 제2회 남원시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K-UAM Evtal 기술개발경연대회까지 다양한 대회가 펼쳐졌다.

드론체험은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드론체험 뿐 아니라 직접 드론을 조립해보고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로봇을 직접 탐소 해보고 조종해보는 체험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S/W 미래재음창작페스티벌, 플레이남원, 청소년진로직업체험 박람회, 남원 교육지원청, 남원과학체험마당, 수확체험교실, 진로캠프 등 정

말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관람객들에게 체험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행사 중간중간에 버스킹공연, 토크콘서트 등을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케도와 미미마미의 뜨거운 호응으로 그 열기가 대단했으며, 세계음식과 남원의 로컬음식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남원 글로벌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관람객들의 입을 만족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었고, 폐막식 이후 미술사 최현우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축하하며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남원시가 드론레저스포츠 미래로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남원시의 대표 가을축제가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역대 최대 58만여명 관광객 방문... 동시다발 지역축제 속 전국 관광객 물이 대성공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10주년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58만여명의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지난해 해 최대 관광객 기록을 또 갱신하는 국내 최대, 국내 유일의 치즈축제로서의 흥행 신화를 다시 썼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10주년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58만여명의 관광객이 대거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치즈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10여 개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열린 가운데 이뤄낸 성과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대형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린 임실N치즈축제를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56만여명보다 많은 58만여명으로 잠정 집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2만6천여명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축제 기간 나흘간 치즈와 유제품, 농특산물 등 매출도 지난해 16억 3000만원보다 무려 8억2000만원이 많은 24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 67%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 날에는 비 오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막 당일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둘째 날을 거쳐 셋째 날에는 역대 축제 당일 기준으로서 역대 최대 관광객이 찾았고, 마지막 날 비가 내렸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오후 늦게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폐막공연에는 서울대 석학과 출신의 불타는 트윈맨 우승자인 손태진이 끝나는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 주며 수준 높은 명품 공연을 선사, 폐막공연에 가장 많은 관객들이 몰렸다.

교통관리도 크게 돋보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인파가 축제장을 찾았음에도, 체계적인 교통관리는 호평이 쏟아졌다. 여기에는 임실경찰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협조에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의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통계획 수립, 실행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번 치즈축제는 10주년을 맞아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였다. 테마파크 내 2천미터 스트림치즈를 1,000여명 인원이 행사장 들레를 한 번에 연결하는 '쭉쭉

늘려 내 치즈'와 숙성치즈 200kg의 '임실N치즈 디지털 품위체험', 숙성치즈 모형을 굴러 성공권에 도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실N숙성치즈 롤링 슌극 행운이벤트' 등 큰 인기를 끌었다.

10주년 기념 임실N치즈와 관련 유제품들에 대한 20% 가격 할인 행사는 평소 고가의 치즈를 구매하는 데 주저했던 소비자들을 축제장으로 오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축제도 즐기면서 명품 임실치즈를 사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전, 대구 등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준비한 향토음식은 얼마 주부들이 직접 만들어 최상의 맛과 저렴한 가격대로 축제 내내 팔리던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등 '축제 맛집'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군은 축제가 끝나더라도 국화꽃 경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보고 11월 상순까지 국화꽃 경관을 그대로 전시해 놓는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가 국내 최대 치즈축제로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초대형 축제에 성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축제에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축제의 미흡한 부분 등을 꼼꼼히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완벽한 축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누리시민증 이용 인증 이벤트 진행

남원시는 오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남원누리시민증 이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가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받고 할인 공공시설 및 가맹점 방문을 인증하면 100명을 추첨하여 커피쿠폰 2장을 증정할 예정이며, 광한투원 등 관광지 8개소를 무료 또는 50프로 할인 입장할 수 있고 70개의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누리시민제도'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생활인구 40만명 유치 목표로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순엽 기획실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남원누리시



민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에코큐브" 서 유아 숲 체험 즐겨요

남원시가 운영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내 생태테마전시시설 '에코큐브'에는 이색적인 동물들의 생태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시설로 울버니, 특수동물, 어류, 곤충 4개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는 미

국수리부엉이, 모홀갈라고원숭이, 알다브라육지거북, 독화살개구리, 레오폴디가오리 등 50여종의 희귀생물을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까지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대

표적인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으며, 사육사가 진행하는 생태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유아나 초등학교생과 더불어 성인들까지 맞춤형 눈높이 해설을 받을 수 있고, 남원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을 통해 이용,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 휴관을 제외하고 1일 3회, 회당 30명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장류축제' 성공 개최 만전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가져

최영일 순창군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순창후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질 '제19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비지 점검에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4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열린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했으며, 각 실과 부서장, 읍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며 축제의 완벽 준비를 위한 마지막 조율이 이루어졌다. 최 군수는 "이번 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순창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 홍보 방안부터 청소년 어울마당, 읍면 먹거리 부스 운영까지 다양한 세부사항이 다뤄졌



다. 축제의 안전 관리 역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순창군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10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축제 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은 즉각 보완하고, 축제를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면서 "순창장류축제가 순창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사가 조성사업 순항

임실군이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사가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은 임실전통시장과 임실공용터미널 인접 지역인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사를 건립하고 있다.

전통 상가의 활성화와 청년 먹거리 특화 거리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 골조 공사 마무리 작업 진행 중으로 부지면적 1,086㎡, 연면적 797.26㎡에 단층 규모로 세워지며, 음식특화사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 옥상 공용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심 민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특화상가는 임실전통상가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완료

남원시는 올해 4월 시작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지난 9월 30일 완료했다.

대상은 40,118개로 건물번호판 32,760개, 도로명판 6,595개, 기초번호판 760개, 주소정보안내관 3개로 전량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망실 훼손 및 표기적정 여부, 시설물 위치 적정성, 시인성 확보 상태를 점검, 시설물 낙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또한 조사 결과 철거, 폐가 등 정비비가 불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은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주 정비 등 11월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김민주 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